

해남 햇김 위판 시작... '작황 부진'에 가격 1.5~2배 ↑

120kg 기준 포대당 36만8100원~43만2000원

곱창김, 빛깔·식감 좋고 품미 뛰어나 귀한 대접

김 작황 부진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가운데 전남 해남 청정바다의 햇김 생산이 시작됐다.

10월31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송지면 어란위판장에 이어 27일부터는 화산면 송평위판장에서도 물김 위판이 시작됐다.

가격은 120kg 기준 포대당 36만8100원~43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2배가량 높은 가격에 위판이 이뤄졌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수온이 24도 안팎에서 정체되면서 김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9일 늦게 첫 위판이 시작됐다. 위판 척수도 적어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

다만 10월 중순부터 수온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영양염 수지도 점차 회복되고 있어 11월부터는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군은 전망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물김은 조생종 잇바디돌김으로 업체가 곱창처럼 길

고 구불구불해 일명 곱창김으로 불린다.

곱창김은 해황의 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화가 심하고, 남해안 일대에서 10월말부터 한달정도 짧은 기간 소량만 생산된다.

일반김에 비해 빛깔과 식감이 좋고, 품미가 뛰어나 가격이 비싼 편이지만 단기간에만 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햇김을 기다려온 소비자들에게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해남군의 김양식은 올해 9607ha, 19만2,140척으로, 생산량 8만3000t, 660억원의 위판고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친환경부표, 김 육상재묘, 우량



어란위판장 물김 위판.

종묘 공급 등 김 양식 관련 11종 사업에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품질의

김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재)해양바이오연구센터 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 인재 양성 등 업무 협약

(재)해양바이오연구센터(센터장 정규진)와 (사)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학회장 강구홍)는 지난 10월28일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 인재 양성과 학술 문화 조성 및 양 기관의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산학 협력 지원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사)한국산업기술융합학회는 산업과 업종, 세대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각계 전문가들과 협력을 통해 현장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육 훈련에 대한 전문적인 학회이다. 정규진 센터장은 "기관 홍보는 물론 인적, 물적 지원뿐만 아니라 학술 세미나 등을 통한 정보 공유로 더욱 독특한 관계로 이어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완도=이민혁기자

강진군, 한해 농사 자체 평가회 개최

강진군은 지난 10월26일 관내 농업인과 관계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 한해 농사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시범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는 식량작물, 원예, 축산 등 분야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로 우수사례 발굴과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우수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실내 평가와 2021 국제농업박람회장 견학으로 점 단농업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급년 시범사업 중 식량작물 분야 ▲벼 도열병 예방 등속률 향상 시범, ▲기능성 쌀(리미오) 생산단지 육성, 원예 분야 ▲강진 딸기 육묘 고도화 시범, ▲사인머스켓 포도 안정생산 시범, 축산분야의 ▲한우 우량 암소 조기 선발 등은 분야별 핵심 시범사업으로 농업인들로부터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강진=김영일기자



강진군, '어촌 지역 소멸 위기 대응' 회의

울진·서산·통영·제주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어업인 등 50여 명 참석

강진군은 지난 10월26일 청소년수련관에서 전남권역 어업인과 전문가,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촌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가졌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정현찬)가 주최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지역소멸 고위험지역인 경북 울진을 중앙 거점으로 전남 강진, 충남 서산, 경남 통영, 제주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동시 진행됐다.

회의는 해양수산부 최현호 정책관의 어촌지역 활성화 대책 발표를 시작으로 어촌 지역소멸시대 대응전략 과제와 지역별 어촌 현황,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극복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정현찬 위원장은 "인구감소, 지역소멸, 초고령사회 등 변화에 직면한 어촌지역의 어려움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어촌지역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심 강진군 부군수는 "강진군은 지난 3년간 어촌뉴딜300사업으로 방파제 정비, 어항 시설 정비 등 어업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가공-판매로 이어지는 6차 산업 육성으로 주민소득도 증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과 2022년도 어촌뉴딜사업 대상지로 강진군을 선정해줄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관내 빈집정비사업 등 어촌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난 8월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을 해 대구면 백사어촌체험마을에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하는 등 인구 유치를 위한 하드웨어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장흥군버섯산업연구, 표고버섯 신제품 현장 실증재배 확대

신제품 개발 이어 농가시험포 조성 및 재배 확대 추진

장흥군은 올해 개발 완료된 표고버섯 신제품의 농가시험포 2개소를 조성해 현장 실증을 통한 종균 조기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표고버섯 원목 재배는 외래 품종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개발된 지도 오래돼 현재 기후와 맞지 않아 품질과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지난 8년간 외래품종 대체 및 지역 특화 신제품 개발을 추진해 올해 우수

신제품 5종을 최종 선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농가시험포 조성으로 신제품과 외래품종 간의 품질과 생산성을 비교 검증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해 내년부터 확대 보급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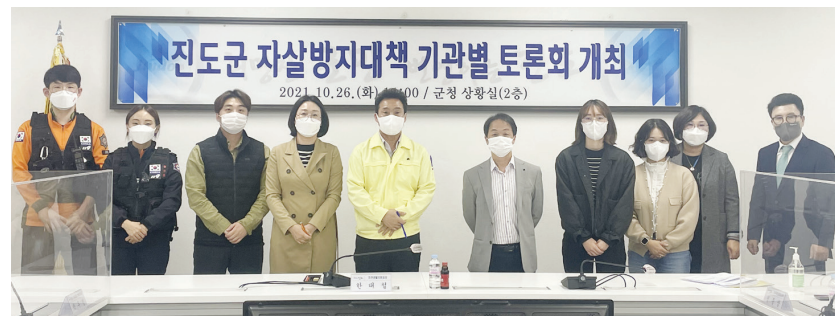
또한 표고버섯 주산지에 걸맞은 참신하고 상징적인 신제품 명칭을 공모 중에 있어 선정이 완료되는 11월에는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농가시험포 참여 농가인 김원섭 씨는 "올해 봄에 접종한 신제품이 자목 활착력이 좋아 표고버섯이 본격 생산되는 내년이 기대된다"며 "표고버섯 재배자의 숙원이었던 신제품이 개발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표고버섯과 연계해 신소득 약용버섯인 북령, 목이, 동충하초, 운지 등을 지속 발굴해 나가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지난 2년간의 시험 성과를 바탕으로 북령 재배 희망농가 7개소를 선발해 시범 재배지도 조성했다. 장흥=김도영기자

진도군, 자살 방지 위해 민·관 힘 모은다

경찰서·교육지원청 등 참석...자살 방지대책 협의회 개최



진도군이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자살 방지 대책협의회를 최근 개최했다.

10월28일 진도군에 따르면 진도군

청과 교육지원청, 경찰서, 119안전센터 등 각급 기관이 참여해 자살 방지 대책과 역할 등에 대해 주제 발표와 자유 토론 등을 실시했다.

정중삼 장학사(진도교육지원청)와 최미경 팀장(진도군 보건소 정신건강팀)이 토론자로 참여해 청소년 자살에 대한 대책, 성인의 우울증과 건전한 여가 생활 방안 등의 정확한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최근 관내 학생과 성인의 잇따른 자살 사건 발생에 따라 진도군청 주관으로 자살 발생 예방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자살의 주요 원인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자살 방지대책협의회는 앞으로 자살 예방을 위해 ▲자살 예방 홍보 ▲자살 위험군의 조기 발견과 개입 ▲자살 시도자에 대한 위기관리 및 추적관리 ▲자살예방 캠페인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진도=조상용기자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